

# 민주·광주·전남통합추진특위' 발족...행정통합 지원

양부남·김원이 의원, 공동위원장 맡아  
입법추진지원단과 함께 입법과정 조율  
공관위원장 김이수 前현재소장 대행  
공천재심위원회 부위원장 권향엽 임명  
정청래 "광주·전남통합법 설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법추진지원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호남권 의원들의 오찬 간담회 이후 급물살을 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행정통합법추진지원단은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특별법 등 입법 과정을 조율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를 설치했다.

김이수 전 현법재판소장 권현대행이 공관위 위원장으로, 조승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수진·모경종 의원, 봉건우 전국대

학생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재심위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권향엽·최기상 의원이 부위원장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없이 '우리' 만 존재한다"며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참석해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9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 회의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및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법, 사회 개혁법을 설 전에 처리하겠다"며 "산데미처럼 쌓인 200여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끊고 처리해 민생을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제가 전명한 바와 같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빅(Big)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뜰뜰 뭉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기를 이어받아 미뤄졌던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베일 벗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 법안

9대 범죄 수사 중수청 조직 이원화  
행정안전부 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쟁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미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먼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시아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권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 만을 지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수청 안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동시에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먼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 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기준에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이번 논의 전제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

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경찰 20여명·군 10여명 조사착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테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다.

경찰청 국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를 만에 구성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 2급/28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 1급/35만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심판/10만

### ■ 자격취득반 / 수시접수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 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